Global Packaging News

Germany

글로벌 빅 이벤트 GMTN, 4년 만에 돌아왔다!

4대 금속산업전시 동시 개최

금속산업의 글로벌 빅 이벤트, GMTN 전시회가 4년 만에 돌아온다.

GMTN은 세계 유일 매머드급 금속산업전시회로 오는 6월 12일~16일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GMTN은 GIFA(주조 전시회 및 기술 포럼), METEC(야금 전시회 및 국제회의), THERMPROCESS(열처리 기술 전시회 및 심포지엄), NEWCAST(캐스팅 전시회 및 뉴캐스트 포럼) 등 4개의 전시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 *2019년 당시 전시장 전경 모습*

GMTN은 원재료부터 기계, 가공기술, 최종 소비재까지 산업 전 영역을 다룬다. 따라서 자동차, 건설, 플랜트, 항공기, 전자제품, 철도, 조선 등 관련 업계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60년간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2019년 전시회에는 127개국에서 약 7만2,500명이 방문하고, 2,368개사가 참석했다.

금속업계발전주기에 맞춰 개최되는 전시회 특성상 최신 솔루션과 혁신적 신기술이 대거 출격한다. 올해 전시회는 신재생기술, 친환경 소재 및 공정, 에너지 효율 증대와 같은 대주제가 글

로벌 파운드리, 야금, 공정 등에 미치는 변화를 집중 조명한다. 또한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의 참가가 확정돼 한껏 기대를 모은다. 따라서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이 될 것이다.

트렌드 바로미터인 GMTN 2023 전시회는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및 강연 등 총 24개의 특별 행사를 기획한다. 주목할 만한 행사로는 VDMA(독일기계공업협회)세미나, 유럽 철강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날 ESTAD 행사, 유럽 금속 공학회의 EMC, BDG 포럼, FOGI 특별전 등이 있다.

GMTN은 친환경이라는 메가트렌드를 겨냥한 에코메탈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 에코메탈 가이드 투어는 미래 성장의 열쇠를 쥔 기업을 소개하는 큐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투어 참가 시 자원 효율화, 탈탄소화,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혁신,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에 특화된 기업과 직접 만날 수 있다. 해당 투어는 온라인 예약 또는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국공동관의 8개사를 비롯해 GIFA에 이엠엘, 영신특수강 등 4개사, METEC에 원진월드와이드 등 4개사, THERMPROCESS에 컴버스텍 사가 개별 참가해 총 17개사가 출품한다. 전시회 방문문의는 메쎄 뒤셀도르프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쎄㈜(02-798-4343, info@rmesse.co.kr)로 할 수 있다.

EU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위한 지침 법적 시행

2024년 7월부터 일체형 병뚜껑 의무화

유럽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실효 단계에 접어들어 실행을 앞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체형 캡(병뚜껑)의 의무화다. 영어로는 tethered cap(테써드 캡)으로 표현되며, 이미 많은 유럽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병뚜껑을 개발하고 상용화 준비를 앞두고 있다.

2019년 6월 5일 제정된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감소에 대한 유럽 ·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904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6조 내용은 일체형 병뚜껑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17조는 법이 2024년 7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적었다.

〈제6조 제품 요구 사항〉

1. 회원국은 부속서 파트 C에 나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과 뚜껑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의 의도된 사용 단계에서 뚜껑과 뚜껑이 용기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7조 전치〉

1. 회원국은 2021년 7월 3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다음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6(1)조

이처럼 병뚜껑에 관한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 유럽 ·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2019/904는 전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보다 지속 가능

하고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가 해양 쓰레기와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생산하고 실제 지구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플라스틱용기 외에도 주요 조치 사항들(부록 참고)이 있는데,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품 생산에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유럽 수출에 있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시사점

2024년부터 시행될 일체형 병뚜껑과 관련하여 아직 한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수출업체들이 많은 듯하나 유럽 수출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페트병일체형 용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병뚜껑과 관련된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EU의 지침을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페트병에 일정 비율 이상 표시해야 하며, 일회용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요건, 보증금환급 제도를 통해 음료수 병 수거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된 의무사항이 어떻게 발전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수출물량 생산에 차질이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Canada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 업데이트

재활용 플라스틱 잔류물질, 식품 안전 문제 유발 가능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식품총국 산하의 화학안전실(BCS)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 지침은 2011년 발표된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 접촉 제품이 가진 가장 큰 잠재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적 재활용 프로세스(mechanical recycling process)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재활용 관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의 출처, 사용 제한, 화학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재활용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사용 제한' 사항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캐나다로 포장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 시 이를 확인해 포장재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 사항〉

원인: 플라스틱은 투과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된 물질에는 잔류 화학물질이 남아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물질 사용 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정 물질이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에 존재할 경우에 해당한다.

- 비(非)식품 등급 첨가물: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 비식품 용기의 착색제, 자외선 안정제, 정전기 방지제, 충격 완화제 등. 2차 재활용 공정은 모든 첨가제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식품 접촉 용기만 재처리하는 분류 절차를 개발하거나 효과적인 차단막을 통해 해당 첨가물의 식품 이동을 방지하는 것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 식품 등급 첨가물: 특정 식품 포장 용도로 사용

된 공급 원료의 식품 등급 첨가물. 식품 등급 첨가제만 포함된 PCR(Post consumer recycled) 원료라 하더라도 식품의 유형 또는 완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단일 특성 용기(PET 물병)만 재처리하거나 최종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상온에서 사용) 또는 식품 유형(건조식품과 함께 사용)을 제한해 개선이 가능하다.

– 외부 화학적 오염 물질(용기 표면에 존재): 비식품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가정용 제품(세제, 크림, 샴푸 등), 최종 사용자가 식품 용기에 보관했을 수 있는 살충제 또는 자동차 화학물질(모터오일 등) 등 재생된 플라스틱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활용 화학물질.

〈 사용 제한 사항〉

재활용업체, 포장 제조업체 및 식품 포장업체는 다음의 '사용 제한' 방안을 적용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식품에 잠재적인 화학 오염물질 및 첨가제가 옮겨가는 것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식품 유형 제한: 예) 건조식품, 자연적인 껍질이 있는 식품, 생과일 및 채소만 사용.
2.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 제한: 예) 실온 이하에서 사용하거나 식품 접촉 기간 제한.
3. 1차 포장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2차 포장으로 다시 분리하는 것을 제한.
4. 효과적인 기능성 보호 장벽 사용: 다중 포장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는 비식품 접촉 층으로 사용하고,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 또는 알루미늄 등의 적절한 물질을 식품과 분리하는 효과적인 장벽으로 사용해 식품에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제한.

Singapore

음료 용기 재활용 '보증금 정책' 시행 예정

2025년 4월부터 음료 캔 · 병에 보증금 10센트 부가

싱가포르는 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를 목표로 2025년 4월부터 음료 캔 · 병에 보증금 10센트(한화 약 100원)를 부가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4월부터 6 월까지 3개월간 시행기한 내에 잔여 재고 물량 판매가 가능하나 7월 1일부터는 음료 포장에 싱가포르 10센트 보증금 마크 및 바코드를 포함한 라벨링 부착이 필수다. 해당 정책은 150ml에서 3L 이하의 음료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매장 내 제조 음료 및 특수 의료 음료의 경우 정책 시행에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매장 규모 200sqm(약 60평) 이상인 400여 군데 유통매장을 의무 수거 거점으로 지정해 소비자가 빈 캔 · 병을 반납할 시 부과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추후에는 호커 센터, 학교, 주유소, 쇼핑몰이 추가 수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싱가포르 환경청에서는 식품업체 F&N과 협업해

▲ *2019년 싱가포르 환경청에서 진행한 재활용 캠페인에 참가하는 모습.*

2019년 10월부터 공병 투입 시 쿠폰을 제공하는 재활용 자판기를 쇼핑몰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공병 10병 투입 시 Anywheel 자전거 무료 시승권, ActiveSG 운동시설 크레딧, STAR$ 쇼핑 및 식사 시 사용 가능한 크레딧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21년 싱가포르 국내 재활용률은 10년 중 최저치인 13%를 기록하였으나 재활용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재활용률을 30%까지 증대할 계획이다. 2022년에 발표한 비닐봉지에 5센트(한화 약 50원)를 과금하는 정책을 2023년 7월 3일부터 대다수 유통매장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재활용률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유통매장 FairPrice, Dairy Farm, Sheng Siong, Prime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및 편의점은 정책 시행 예외대상이다. 하지만 7-Eleven, H&M, Watson, Guardians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시행 중이다.

시사점 및 전망

싱가포르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존 등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 음료 수출업체는 싱가포르 정부 정책에 맞는 용기 라벨링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 시행 후 한국산 음료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Russia

대통령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포장 이용 지시

露 수출 시 제품 패키지 신경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식품 및 가공산업 기관들과 무역 및 호텔-레스토랑 사업 분야의 기업들이 플라스틱 제품 대신 일회용 종이 포장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 채택을 지시했다.

지시령 원문에는 '러시아 정부는 군산복합체의 요구 충족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셀룰로스 및 그 가공품의 생산 발전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시민, 식품 및 가공산업 기관들, 무역 및 호텔-레스토랑 사업 분야 기관들의 일회용 종이(판지) 패키지, 포장, 식기의 이용 비중 확대를 위한 조처를 한다' 고 되어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6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책임자에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가 지명되었다.

앞서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생산을 제한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부처의 목록에는 28개의 플라스틱 제품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 제품들은 생물분해성 유사물, 유리, 종이와 목재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 용기, 컵, 봉지, 면봉이 포함된다.

시사점

러시아 정부에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제품 수출 시 이를 고려하여 제품 패키지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